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16-23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The Peoples Church) 라는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Oswald, J, Smith)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목사님은 지난 1986 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 각지에 약 35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 출신인 McBride 목사가 시무를 하는데 현재도 전체 예산의 31%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1200 곡 이상의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작곡했으며 찬양이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라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현재 우리교회 3 부 예배와 비슷합니다. 또한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천했을 때, 빌리 그레햄 목사는 “그는 나의 인생에 어느 사람보다도 큰 영향력을 준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위대한 곡을 쓴 작곡가로서 D.L Moody, Torrey 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선교에 대해서는 견줄만한 사람이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이시여, 그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는, “나는 세상의 돈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명예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향락은 멀리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꼭 있는데 이 소원은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옛날 에녹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만 말고 이틀만 말고 일생토록 몇 시간만 말고 매분 매초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은 어떻게든 생각이라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결하고 옳은 생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대로 백 퍼센트, 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평생을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의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행 13:22)

이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간음도 했으며, 잘못된 인구조사로 백성들도 많이 죽게 하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비록 몇번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단 한번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인 시편 23 편을 지었던 당시 다윗의 상황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새들백 교회의 릭 웨렌 목사는 실수 투성이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사도행전 13 장 36 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도되” (행 13:36)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는 이 성경 구절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릭 웨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목적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 (빌 3:14)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꽃대를 향하여 전력투구합니다. 그의 시간도, 청춘도, 재능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꽃대를 향해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장래가 촉망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 그는 세상적 가치들,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적 성공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한 후, 그의 삶은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뜻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간다' 고 고백한 바울은, 그가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인생의 마무리에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또 다른 한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그 분은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38-39)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은 예외 없이 전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분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한 일이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 일꾼들 가운데, 오후 다섯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주인의 너그러움과 자비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렵음도, 또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모두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구원, 즉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복음 전파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을 약속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3)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어 살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7-8)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우리도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마에 맞는 사람' 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마에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두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4.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진솔하게 나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